

기출 역어보기

무슨 말이지...?
침착하고 뭐라고 하는지부터
정리 그리고 나오는 비판 유형...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2년도 수능

(가)

㉠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 지녀야 한다.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

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접안

(가) 변증법의 정의부터 확인하자. 그리고 절대정신의 정의, 절대적 진리의 정의를 '정리'해보자 무슨말이지? 하고 고민하는 순간 시간은 흘러간다. 절대 정신의 세 형태에 대응하는 형식까지 정리해냈으면 반쯤 해결!
(나) 변증법에서 일어나서는 안되는 두 가지를 제시해주며 시작한다. 갑자기 비판을 한다. 아무래도 헤겔이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오류 중 하나를 범했나보다... 이제 그 오류를 어떻게 범했는지 '확인'하고 필자의 주장을 정리하자. 그리고 주장의 근거도 확인하자.

글 구조 및 논리 분석 이지만 구조...? 보일까?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3.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4.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⑤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첨언

정립 - 반정립 - 종합

예술 - 종교 - 철학

직관 - 표상 - 사유

각각의 관계를 정리해주고 각각 무슨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가만 정리해주면

문제는 풀린다.

이해를 하면 좋지만 시간내에 할 수 있었을까?

5.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은 말이 됩니다.

-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접안

from 지문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

<보기>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 왜 말이 안맞을까...진정한 예술미는 과거에만 한정된다 해두고 이제와서?
 그리고 변증법에의하면 일방적 승리로 사라지는 것은 안된다.

선지도 글의 내용만 잘 체크하면 소거가된다,
 변증법이 무엇이었는지 (가) 첫 문단에서 확인하고 (나)에서 헤겔의 변증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비판하는 부분에서 확인해야한다.
 대부분 선지는 지문 내용이 어느정도 정리되었다면 그어진다.

6.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2년도 9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위한 둘째 조건과 충돌한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인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자유의지와 다른 의미를 지닌 자유의지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내가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말이 단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의미한다면,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내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지는 ㉢ 여기서 염두에 두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유의지와 다르다.

다음으로,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는 나일 수 있다.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것은 '선택 시점에 갑의 뇌에서 신경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의 이러한 신경 사건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해 보자. 이러한 가정 아래에서도 갑은 그 선택의 주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선택 시점에 발생한 뇌의 신경 사건으로서 '갑이 딸기 우유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 반자유의지 논증의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접인

서로 다른 두 관점으로 시작. 비교-대조 (A↔B)

그러다가 뭔가 질문을 한다. 자유의지?

A와 B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읽어내자.

예시를 통해서 제시가 된다.

역접의 접속사 '그러나'가 나오고 비판이 나온다...

어... 이거?

일단 기사감은 제쳐두고 누구를 비판하는지 그리고 주장이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자.

언제나 말하지만 여기서의 '이해'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이해와는 상이하다.

마지막에 '결국'에 주목해볼 것 그런데 친절하게 줄까지 쳐줬다.

문제에서 다룰 내용이겠구나...

글 구조 및 논리 분석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물론적 인간관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 ② 유물론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을 물리적 사건으로 본다.
- ③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다고 보지 않는다.
- ④ 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선택에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 ⑤ 반자유의지 논증은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8.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②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③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 ④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가 있을 수 없다.
- ⑤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고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과 ㉡ 중 어느 것도 있을 수 없다.

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② 어떤 선택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③ 어떤 선택은 선결정되어 있지만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 ④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 ⑤ 어떤 선택은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윗글의 ㉣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 차례 관측한다.

○ 논의 : [A]

-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첨언

이 문제의 논리를 조금 생각해보자.
헤겔 지문 8번과의 연관점도 한번 생각해볼까? (이 지문이 선 헤겔이 후)

[11~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8년도 9월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관광객 차림의 부부를 본다면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미술 작품이라는 것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하는 유파를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한다.

관광객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려하면 ㉠ 현실성이 높다고 하고, 그 대상을 시각적 재현에 ㉡ 기대어 실재와 똑같이 표현하면 ㉢ 사실성이 높다고 한다.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 하이퍼리얼리즘은 같은 리얼리즘 경향에 ㉣ 드는 팝아트와 비교하면 그 특성이 잘 드러난다.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하여 현재까지 유행하고 있는 유파로,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은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팝아트는 주로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지만,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뿐만 아니라 트롱프뢰유*의 흐름을 ㉤ 이어 표현의 사실성도 추구한다. 팝아트는 대상의 정확한 재현보다는 대중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한 반면에,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여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방법을 추구하였다.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작가에는 헨슨이 있다. 그의 작품 ㉥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1969)는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작품의 대상은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와 여자이다.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며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하고 있고,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가 상품이 넘칠 듯이 가득한 쇼핑 카트를 밀고 있는 구도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보여 준다.

이 작품의 기법을 ㉦ 보면, 생활공간에 전시해도 자연스럽도록 작품을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하였다. 사람을 보고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붙여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또한 기존 입체 작품의 재료인 청동의 금속재 대신에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 여기에 오브제*인 가발, 목걸이, 의상 등을 덧붙이고 쇼핑 카트, 식료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실성을 ㉧ 높였다.

리얼리즘 미술의 가장 큰 목적은 현실을 포착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작가가 포착한 현실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 등의 리얼리즘 작가들은 대상들을 그대로 재현하거나 함축적으로 변형하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현실을 전달하여 감상자와 소통하고 있다.

* 트롱프뢰유(trompe-l'oeil) : '속임수 그림'이란 말로 감상자가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

* 오브제(objet) : 일상 용품이나 물건을 본래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 또는 그 물체.

첨언

첫 문단이 예시같은 무언가로 시작된다. 아 이게 무언가 이해시키려고 주는거구나 하고 넘어가자.

현실성과 사실성의 정의가 조건의 형태로 제시된다.

읽다보면 리얼리즘 안에 두 가지 항목이 있다.

하나는 첫 문단에서 제시된 하이퍼리얼리즘 다른 하나는 팝아트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읽고 정리하자. 쉽다.

글 구조 및 논리 분석

11. ㉠과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당시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을 높였다.
- ② 팝아트는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달리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③ 하이퍼리얼리즘이 팝아트와 달리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다.
- ④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이 주로 인쇄 매체를 활용한 것은 ㉡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 ⑤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모두 ㉠과 ㉡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리얼리즘 유파에 해당한다.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현한 인체에 실제 사물인 오브제를 덧붙이고 받침대 없이 전시하여 실재처럼 보이게 하였다.
- ② 찰흙으로 원형을 만들지 않고 사람에게 석고를 덧발라 외형을 뜨는 기법을 사용하여 형태를 정확히 재현하였다.
- ③ 현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주체는 실물과 똑같은 크기로, 욕망의 객체는 실제 그대로 제시하였다.
- ④ 인체의 피부 질감을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따위의 신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 ⑤ 당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하였다.

13. 윗글의 '헨슨'의 작품과 <보기>의 작품을 바탕으로 할 때, 작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를 비평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쿠넬리스, 「무제」



코수스,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

쿠넬리스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살아 있는 말 12마리를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화랑이라는 환경 안에 놓인 실제 말들의 존재와 말들의 온기와 냄새, 그리고 소리를 체험해서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 세 가지 모두를 한 공간에 배치하여, 대상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 ① 헨슨이 쿠넬리스에게 : 미술은 시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등 다양한 체험이 감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 ② 헨슨이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치 있어야 한다.
- ③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 미술에서 재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실물 주형의 기법보다 대상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쿠넬리스가 코수스에게 : 미술에서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가 실제 대상을 대면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 ⑤ 코수스가 쿠넬리스에게 : 미술에서 대상을 재현할 때는 대상의 이미지보다 그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

첨언

비판 유형이다.
 각자의 주장만 잘 정리해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위의 문제들을 잘 기억하자 어렵지 않은 유형도 언젠가 고난이도로 다시 돌아온다.

14.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누나가 그린 그림을 벽면 한쪽에 기대어 놓았다.
- ② ㉡ : 그때는 언니도 노래를 잘 부르는 축에 들었다.
- ③ ㉢ : 1학년이 출발한 데 이어 2학년도 바로 출발했다.
- ④ ㉣ : 사무실에는 회계를 보는 직원만 혼자 들어갔다.
- ⑤ ㉤ :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5~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24학년도 6월

(가)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기능이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되며,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짚뿌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설(Searle)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한다. ‘중국어 방’ 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된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됨’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에 ㉡따르면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다.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앞의 예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즉 로랜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나)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째,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세계에 있다. 둘째,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

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되며, 후자에 의하면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첨언

(가) 비교/대조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기능’의 의미를 정의를 통해 확인하고 예시를 통해 이해했어야한다. 그리고 설이 기능주의를 반박한다고 할 때 그렇다면 설은 동일론자와 궤를 같이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3문단에서 이 셋의 공통점이자 문제점인 오직 의식을 몸의 내부에서만 다룬다는 것을 읽고 아 굳이 그것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해주자. 그리고 그 해결책인 로랜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내부를 넘어 외부까지 다루겠군...하고 뒤에서 확인하러 가야한다. ‘아니라’와 ‘달리’도 열심히 사용하자.

(나) 시작부터 ‘지각’에 대한 정의를 해주며 전제를 2개 깔아줬다. 이것에 대한 두가지의 객관주의 철학이 나오니 차이점 파악후 공통점도 기억하자 그러다보면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정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문장을 접하게된다. ‘분리를 전제’=‘주체와 대상이 각각 확정되어 존재’를 정리하게될텐데 그 뒤에 ‘하지만’을 통해 필자의 주장이 제시된다. 그걸 잘 읽어보고 문제로 가자, ‘다시 말해’에 주목!

글 구조 및 논리 분석

15.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과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는 기능주의를 소개한 후 ㉠ 은/는 같지 않다는 설(Searle)의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지 과정이 몸 바깥으로까지 확장된다고 주장하는 확장 인지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나)는 인지 중에서도 감각 기관을 통한 인지, 즉 지각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고, ㉡ 으로서의 지각을 주장하고 있다.

- | | |
|--------------|---------|
| ㉠ | ㉡ |
| ① 의식과 함수적 역할 | 내 몸의 체험 |
| ② 의식과 함수적 역할 | 물질적 반응 |
| ③ 의식과 뇌의 상태 | 의식의 판단 |
| ④ 의식과 뇌의 상태 | 내 몸의 체험 |
| ⑤ 입력과 출력 | 의식의 판단 |

16.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② 설(Searle)은 ‘중국어 방’ 안의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이 서로 다르다고 볼 것이다.
- ③ 로랜즈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 ④ 로랜즈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 ⑤ 로랜즈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아니라고 볼 것이다.

17.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②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③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④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⑤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1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과 지각 모두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 ②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지각이기 때문에
- ③ 지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감각은 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 ④ 지각은 의식으로서의 주체가 외부의 대상을 감각하여 판단한 결과이기 때문에
- ⑤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이 분리된 채로 존재하기 때문에

19.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빛이 완전히 차단된 암실에 A와 B 두 명의 사람이 있다. A는 막대기로 주변을 더듬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한다. 막대기 사용에 익숙한 A는 사물에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는 초음파 센서로 탐지한 사물의 위치 정보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사용하여 전달받는다. 이를 통해 B는 사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BCI는 사람의 뇌에 컴퓨터를 연결하여 외부 정보를 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다.

- ① (가)의 기능주의에 따르면, A와 B가 암실 내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 이때 둘의의식은 차이가 없겠군
- ② (가)의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나겠군.
- ③ (가)의 확장 인지 이론에 따르면, 암실 내 사물에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그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가 아니겠군.
- ④ (나)에서 몸에 의한 지각을 주장하는 입장에 따르면,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의식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 따르면, BCI를 통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자극에 따른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겠군.

20. 문맥상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 : 그간의 사정을 봐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
- ② ㉡ : 이사 후에 가난하던 살림살이가 일어났다.
- ③ ㉢ :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 문제가 심각해졌다.
- ④ ㉣ :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펼쳤다.
- ⑤ ㉤ :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법 만질 줄 안다.

비판/평가 특강

비판 유형과 평가 유형은 방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비판 유형은 상대의 반대 방향임을 전제하고 풀어야하고 평가 유형은 상대의 방향성에 따라 옹호할지 반박할지 여부가 갈린다.

우리의 사고순서는 다음과 같다.

비판의 경우

1. 기준점이 되는 입장을 설정한다. 문제가 비판을 요구하였으므로 상대방은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다.
2. 지문의 주장과 근거를 다시 정립하고 온다.
3. 선지에 $A(x) \rightarrow B(y)$ 틀을 적용한다.

이때, 먼저 기본적으로 사고의 순서는 먼저 기준점이 되는 입장을 A로 잡고 A의 주장-근거 쌍인 x 를 잡아둔다.

그 다음으로 B가 해야할 말인 주장-근거 쌍인 y 를 잡아둔후 선지로 간다.

(이때, B의 주장-근거 쌍을 z 로 치환하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주의한다.)

평가의 경우

1. 기준점이 되는 입장을 설정한다.
2. 상대방과 방향성을 체크한다. (옹호or반박)
답이 되는 방향성부터 골라낸다.
예를들어 옹호의 방향성을 가지는데 선지중 2개가 반박의 방향성을 가진다면 반박의 방향성을 가진 2개의 선지를 먼저 그어내고 남은 것을 판단한다.
3. 선지에 $A(x) \rightarrow B(y)$ 틀을 적용한다.

주의

방향성 판단시 '타당하다', '옳다' 같은건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고 '상충한다.', '반대된다' 는 다른 방향성을 나타낸다.

적용 예제

(나)의 필자의 관점에서 ㉠을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각 이전에 확장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②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③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므로 타당하다.
- ④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 ⑤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타당하다.

집언

1. 평가유형임을 파악한다.
2. 방향성을 설정한다
선지에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를 구별하여 먼저 판단한다.
3. 선지에 $A(x) \rightarrow B(y)$ 틀을 적용한다.

[1~6] 주제 통합

[1~6] 인문, (가)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 / (나)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 대한 비판

지문해설 : (가)는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논리적 구조를 따르는 변증법에 대해 설명하고, 미학도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했던 헤겔의 예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헤겔에 따르면,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며, 이들 셋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예술·종교·철학은 이념을 인식하는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며 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헤겔은 이러한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인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술은 초보 단계, 종교는 성장 단계,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주제]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미학에서의 절대정신과 예술

지문해설 : (나)는 변증법에서의 종합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며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엄밀하고도 정합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헤겔은 변증법 모델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이를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헤겔의 미학에서는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이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말하고 있다.

[주제] 헤겔의 미학에 드러나는 변증법과 철학적 체계 간 불일치에 대한 비판

1.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변증법에 기반한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이 초보 단계의 절대정신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나)는 정립-반정립-종합이라는 변증법의 체계에 충실하고자 할 때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에서는 예술을 철학보다 인식 수준이 낮은 절대정신으로 보고, (나)에서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이라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을 바탕으로 예술의 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에서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와 (나)가 변증법 자체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와 (나)가 모두 변증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헤겔의 미학에 드러나는 변증법과 철학적 체계를 살펴 헤겔의 미학이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것은 아니라는 아쉬움을 지적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가)와 달리 (나)가 변증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가)와 (나)는 모두 예술 장르를 유형화하지는 않았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도 않다.

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로 예술·종교·철학을 제시하고, 각각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예술·종교·철학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라는 지성이라고 하였다.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인 예술·종교·철학이 각각 직관·표상·사유라는 인식형식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지, 이러한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의 인식 대상이 각각 예술, 종교, 철학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② 1문단에서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와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은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④ 1문단에서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에서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라고 하였다.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향의 하늘을 상기는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리는 것은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므로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그림을 보는 것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므로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므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나)의 글쓴이는 헤겔이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은 외관상으로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를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관의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의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있을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나)의 글쓴이는 ㉠의 논리적 구조에서와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약해진다고 본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글쓴이는 헤겔의 변증법에서 종합의 범주가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즉 (나)의 글쓴이는 ㉠과 ㉡ 모두에서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가 서로 대립한다고 본 것이다. ② (나)의 글쓴이는 6 변증법에서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또한 헤겔이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관성이 점층적으로 강화 완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나)의 글쓴이는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④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헤겔의 미학에서의 변증법적 종합은 진정한 종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즉 (나)의 글쓴이는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⑤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서 두 대립적 범주의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헤겔의 미

학에서는 직관의 외면성,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이 종합의 단계에서 완전히 소거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나)의 글쓴이는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나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5. 글에 대한 정서적 반응 이해

정답해설 : (나)의 글쓴이는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된다고 말하면서 헤겔의 미학에서 드러나는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불일치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서 헤겔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하여 (나)의 글쓴이가 이론적으로는 예술이 직관의 외면성에 대응하더라도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예서 헤겔은 인생의 완숙기에 쓰여진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에 대해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예술미로 승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나)의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이 '사유'를 매개로 예술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을 잘 드러냈음을 헤겔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가 헤겔의 말에 대해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의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어지는 헤겔의 미학에서 예술은 정립 단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나)의 글쓴이가 헤겔의 이론에 대해 예술이 이론에서 반정립 단계에 위치한다고 이해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나)의 글쓴이는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이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나)의 글쓴이는 <보기>에 언급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처럼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킨 작품은 재객관화된 단계로 볼 것이므로 헤겔의 말을 듣고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닐 것이라고 이해하여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헤겔은 예술을 절대정신의 한 형태로 보았고, (나)의 글쓴이는 예술이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하였다. 따라서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최고의 지성적 통찰이 예술미로 승화된 것이라고 한 헤겔의 말을 듣고 (나)의 글쓴이가 예술이 진리의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이해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귀결되다'는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되다.'라는 뜻으로, '일이 다이루어지다.'라는 뜻의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소지하다'는 '물건을 지니고 있다.'라는 뜻으로,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포착하다'는 '꼭 붙잡다, 요점이나 요령을 얻다,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리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간주하다'는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라는 뜻으로,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결성되다'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가 짜여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에 의하여 일정한 상태나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다.'라는 뜻으로 쓰인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7~10] 독서, '반자유의지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문해설 : 이 글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소개하고, 이어서 반자유의지 논증에 관한 비판적 입장의 주장과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임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주제] 반자유의지 논증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주장 및 근거

7.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때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반자유의지 논증이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제시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으며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1문단에 제시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즉 인간의 선택은 뇌라는 물리적 실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③ 1문단에 제시된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즉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1문단에 제시된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인간 결정의 원천이다. 즉 인간의 선택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므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한 것이다.

8.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어떤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의미인 ㉠의 산물일 수 있다. ②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하는 상황에서 그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그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면 그 선택은 ㉠의 산물일 수 있다. ⑤ 어떤 선택을 위해서 한다면 그 선택의 선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도 않다면 어떤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있다.

9.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무작위로 일어난 어떤 선택은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을 이유로 들어 ㉠과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반자유의지 논증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②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③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어떤 선택이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④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10.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예서 H의 실험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 즉 인간의 선택이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에서의 다른 신경 사건과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입각하였을 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부인될 수 있으며,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②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H의 실험은 선결정 가정과 관계된 것으로,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고 해서 ㉠이 무작위 가정을 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다는 가정이 맞지 않게 되므로 선결정 가정은 참이 아닐 수 있다. 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11~14] 예술, '하이퍼리얼리즘'

지문해설 : 팝아트와의 대비를 통해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징을 설명한 글이다. 팝아트와는 달리 하이퍼리얼리즘이 현실성뿐만 아니라 사실성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헨슨의 작품 「쇼핑 카트를 밀고 가는 여자」를 예로 들어 하이퍼리얼리즘에서 어떤 기법들을 이용하여 실재에 가까운 재현을 이루어 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성과 주로 사용되는 기법

11.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정답해설 : 하이퍼리얼리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성'과 '사실성'을 중심으로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항이다. 2문단에서 하이퍼리얼리즘과 팝아트는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의 모습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문단의 첫 문장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할 때 '현실성'이 높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팝아트와 하이퍼리얼리즘은 공통적으로 당시의 자본주의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아 현실성을 높였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사실성'은 대상을 정확히 재현하는 것이다. 팝아트가 대상을 함축적으로 변형했다는 것은 대상을 실재와 같이 재현하였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팝아트는 사실성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정확한 재현을 추구하는 하이퍼리얼리즘이 사실성이 높다. ③ 각주의 설명에 따르면 트롱프뢰유는 실물처럼 착각할 정도로 대상을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이퍼리얼리즘이 트롱프뢰유의 전통을 이은 것은 현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밀한 재현을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④ 주로 인쇄매체를 활용한 것은 팝아트이고, 하이퍼리얼리즘은 새로운 재료나 기계적인 방식을 적극 사용하였다. 또한 사실성을 추구했다는 내용은 하이퍼리얼리즘에만 해당하는 진술이다. ⑤ 팝아트는 대상의 현실성을 추구하는 반면, 하이퍼리얼리즘은 대상의 현실성과 표현의 사실성을 모두 추구한다.

1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하이퍼리얼리즘의 사례로 제시한 헨슨의 작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3문단에서 ㉔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비판적 시각에서 표현한 작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㉔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비자와 상품을 제시한 것은 합리적인 소비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 속에서의 과잉 소비 성향'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4문단에서 ㉔의 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㉔은 전시 받침대 없이 제작되었으며 실물 주형 기법으로 사람의 크기와 형태를 똑같이 재현하고 여기에 기8발, 목걸이, 의상 등의 오브제를 덧붙여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② 4문단에서 ㉔은 '찰흙으로 형태를 만드는 방법 대신 사람에게 직접 석고를 덧발라 형태를 뜨는 실물 주형 기법을 통해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㉔의 여자는 욕망의 주체이며, 상품이 가득한 쇼핑 카트는 욕망의 객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여자는 사람의 형태와 크기를 똑같이 재현한 것이고, 상품은 일상 속 그대로의 대상이다. ④ 4문단에서 '합성수지, 폴리에스터,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하고 에어브러시로 채색하여 사람 피부의 질감과 색채를 똑같이 재현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13.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헨슨의 작품과 예 제시된 쿠넬리스, 코수스의 작품을 비교하여 미술에 대한 세 사람의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에서 실제 살아있는 말을 화랑 벽에 매어 놓고 감상자가 직접 체험을 통해 말에 대해 느끼고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쿠넬리스는 대상을 직접 제시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대상을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대상을 실재와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재현의 방법이라고 여긴 것이

다. 그러므로 쿠넬리스가 헨슨에게 실물 주형 기법을 쓰는 것보다 실물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재현의 방법이라고 평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헨슨은 자신의 작품에서 실물 주형 기법 등을 통해 사람의 형태와 크기 등을 똑같이 만들어 냈다. 시각적인 면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에서 온기, 냄새, 소리를 통해 다양한 감각 체험이 가능하도록 실물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헨슨이 아니라 쿠넬리스가 미술작품에서 다양한 체험을 강조할 것이다. ② 헨슨은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미술의 역사적, 정치적 가치에 대해 강조했는지 여부는 제시문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쿠넬리스는 「무제」라는 작품에서 감상자가 실물을 체험함으로써 다양하게 작품의 의미를 만들도록 하였다. 코수스는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작품에서 작가의 생각, 의도를 담아 '의자의 사진', '실제 의자', '의자의 언어적인 개념'을 한 공간에 배치하였다. 작가에 의해서 작품의 의미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은 쿠넬리스가 아니라 코수스의 생각에 가깝다. ⑤ 코수스는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라는 작품에서 실제의 의자만이 아니라 의자 이미지(사진)와 의자의 개념도 함께 제시한다. 코수스는 대상 자체만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지 않았다.

1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와 ㉕의 '들었다'는 공통적으로 '어떤 범위나 기준, 또는 일정한 기간 안에 속하거나 포함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㉔는 '남의 힘에 의지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①에서 '기대어'는 '몸이나 물건을 무엇에 의지하면서 비스듬히 대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 ㉕는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③에서 '이어'는 '뒤를 잇따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 ㉔는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④에서 '보는'은 '어떤 일을 맡아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⑤ ㉕는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라는 뜻의 '높다'가 사동으로 쓰인 것이다. ⑤에서 '높였다'는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라는 뜻의 '높다'가 사동으로 쓰인 것이다.

[15~20] 인문, (가) 심리 철학에서 의식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 / (나) 체험으로서의 지각

지문해설 : (가)는 심리 철학의 동일론과 기능주의, 그리고 '설'의 기능주의 비판을 소개한 후, 인지 과정을 몸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 로랜츠의 확장 인지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보는 반면, 기능주의는 의식은 기능이므로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설'은 이러한 기능주의에 대해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통해 동일한 기능이 구현되더라도 의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동일론, 기능주의, 설의 이론은 모두 의식의 문제를 몸의 내부에 한정된 논의들이었다. 반면, 로랜츠의 확장 인지 이론은 의식의 하나인 '인지'가 확장되는 과정을 통해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하였다.

[주제] 동일론, 기능주의, '설'의 사고 실험과 달리 의식의 문제를 몸 바깥으로 확장시켜 이해한 로랜츠의 확장 인지 이론의 의의

15.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의식이 기능이라고 주장하며, 이때 기능이란 입력과 출력의 함수적 역할로 정의된다. 또한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중국어 방' 사고 실험을 통해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즉 '설'은 의식과 기능이 같다는 기능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의식과 함수적 역할'이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객관주의 철학은 지각을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하거나,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한다. 이에 대해 (나)의 4문단에서 필자는 지각이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내 몸의 체험'이 ㉡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는 지각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비판하며 4문단에서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적 반응'이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설'의 비판 대상은 의식과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동일론이 아니라 의식과 기능이 같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이므로, '의식과 뇌의 상태'가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필자는 지각이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의식의 판단'이 ㉡에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를 비판한다. '설'의 비판 대상은 의식과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동일론이 아니라 의식과 기능이 같다고 주장하는 기능주의이므로, '의식과 뇌의 상태'가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의식이란 기능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때 기능이 같다는 것은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즉 기능주의의 주장은 입력과 출력의 쌍이 같으면 의식 역시 같다는 것이지 입력과 출력이 같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력과 출력'이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의 4문단에 따르면 필자는 지각이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의식의 판단'이 ㉡에 들어가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1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로랜츠는 기억이나 믿음과 같은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몸 외부로 확장된다고 본다. 따라서 로랜츠는 기억이 주체의 몸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볼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동일론은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론자들은 뇌가 존재하지 않으면 의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설'은 중국어로 된 입력에 대해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고 해서 '중국어 방' 안의 사람이 중국어를 아는 것이 아니며, 이는 기능이 같더라도 의식은 다를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았다. 따라서 '설'은 중국어로 된 입력에 대해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 동일한 기능을 하더라도 '중국어 방' 안의 중국어를 모르는 사람과 중국어를 아는 사람의 의식은 다르다고 볼 것이다. ④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로랜츠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로랜츠는 인지 과정이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⑤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 파생적 상태이며,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따라서 로랜츠는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가 그 자체로는 심적 상태가 아니라 파생적 상태라고 볼 것이다.

17.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며,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즉, 지각이 일어난 이후 주체와 대상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에 따르면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에 이어진 내용에서도 로랜츠는 주체 없는 인지란 있을 수 없다고 보았다고 하였다. 이는 인지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하고 주체에 의해 인지가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나)의 필자는 확장된 인지 과정이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에 대해, 지각 이전에 확정된 주체를 전제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객관주의 철학은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보아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이처럼 객관주의 철학은 전자든 후자든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이에 대해 (나)의 3문단에서 필자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라는 점에서 객관주의 철학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필자는 의식이 세계를 구성하는 독자적 실체라는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을 근거로 ㉠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객관주의 철학의 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나)의 필자는 이는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므로 (나)의 필자는 의식이 물질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④ ㉠에 따르면 로랜츠는 주체와 통합된 경우에만 확장된 인지 과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의 확장된 인지 과정이란 외부의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즉 로랜츠는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나)의 필자는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통해서만 지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해 ㉠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18.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주체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그리고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즉 주체와 대상이 확정되기 이전에 나타나는 지각의 얽힘은 곧 감각의 얽힘이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는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작용이 곧 지각이기 때문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는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감각과 지각이 모두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지만 감각을 사물로부터의 자극으로, 지각을 이에 대한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하여 감각과 지각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감각과 지각이 모두 물질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감각과 지각이 구분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 ③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몸의 감각 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이며, 4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내 몸의 체험이다. 따라서 감각과 지각 모두 몸에 의해 이루어진다. ④ (나)의 필자는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의식으로서의 주체를 전제하여 지각을 이해하는 것은 ㉠의 이유가 될 수 없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

면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 즉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일어난 이후 주체와 대상이 분리된다. 즉 주체와 대상이 분리되기 이전에 감각과 지각은 구분되지 않는다.

19.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4문단에 따르면 심적 상태는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지만, 파생적 상태는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로 정의된다. 또한 로랜즈에게 인지 과정이란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한편 <보기>의 A는 사물에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을 통해 사물의 위치를 지각한다. 따라서 암실 내 부딪친 막대기의 진동이 A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막대기의 진동 상태는 파생적 상태이며, A가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막대기의 진동 상태를 조작하여 사물의 위치에 대한 심적 상태가 생겨나는 인지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막대기의 진동 상태가 파생적 상태가 아니라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 따르면 기능주의는 의식을 기능으로 보며, 이때 기능은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이다. 또한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능주의에 따르면 A와 B가 동일한 사물의 위치를 묻는 질문, 즉 동일한 입력에 대해 동일한 대답, 즉 동일한 출력을 내놓는다면 기능이 동일하므로 A와 B의 의식 역시 차이가 없다. ② (가)의 4문단에 따르면 로랜즈의 확장 인지 이론에서 인지 과정이란 주체에게 믿음이나 기억과 같은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다. 이에 따르면 BCI로 암실 내 사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B의 인지 과정인 경우, B에게 사물의 위치에 대한 믿음이라는 심적 상태가 생겨날 것이다. ④ (나)의 4문단에 따르면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따라서 막대기에 의해 A가 사물의 위치를 지각하는 경우, 지각이 이루어지게 한 막대기는 A의 몸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의 2문단에 따르면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는 입장에서는 지12각을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BCI를 통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B의 지각이 일어난 경우 BCI를 통해 들어온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인 B의 물질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20.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의 '알아보다'는 '조사하거나 살펴보다.'라는 뜻을 지니므로, '단어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사전을 펼쳤다.'의 '알아보다'와 문맥상 의미가 유사한 단어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㉔의 '보다'는 '대상을 평가하다.'의 뜻을 지니지만, '그간의 사정을 봐서 그를 용서해 주었다.'의 '보다'는 '상대편의 형편 따위를 헤아리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② ㉕의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기다.'의 뜻을 지니지만, '이사 후에 가난하던 살림살이가 일어났다.'의 '일어나다'는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③ ㉖의 '따르다'는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뜻을 지니지만, '개발에 따른 자연 훼손 문제가 심각해졌다.'의 '따르다'는 '어떤 일이 다른 일과 더불어 일어나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⑤ ㉗의 '만지다'는 '손을 대어 여기저기 주무르거나 쥐다.'의 뜻을 지니지만, '그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법 만질 줄 안다.'의 '만지다'는 '물건을 다루어 쓰다.'의 뜻을 지니므로 문맥상 의미가 유사하지 않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5 LEET

예술사를 양식의 특수하고 자족적인 역사가 아니라 거시적 차원의 보편적 정신사 및 그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고 본 점에서 헤겔의 예술론은 구체적 작품들에 대한 풍부하고 수준 높은 진술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에 속한다. 그는 예술사를 ‘상징적’, ‘고전적’, ‘낭만적’이라고 불리는 세 단계로 구분한다. 유의할 것은 이 단어들이 특정 예술 유파를 일컫는 일반적 용법과는 사뭇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이 세 용어는 지역 개념을 수반하는 문명사적 개념으로서 일차적으로는 태고의 오리엔트, 고대 그리스, 중세부터의 유럽에 각각 대응하며, 좀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자연 종교’, ‘예술 종교’, ‘계시 종교’라는 종교의 유형적 단계에 각각 대응한다. 나아가 이러한 대응 관계의 단계적 설정은 신이라는 ‘내용’과 그것의 외적 구현인 ‘형식’의 일치 정도에 의거하며, 가장 근본적으로는 순수한 개념적 사유를 향해 점증적으로 발전하는 지성 일반의 발전 법칙에 의거한다. 게다가 이 세 범주는 장르들에도 적용되어, 첫째 건축, 둘째 조각, 셋째 회화·음악·시문학이 차례로 각 단계에 대응한다. 장르론과 결합된 예술사론을 통해 헤겔은 역사의 특정 단계에 여러 장르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각 단계에 대응하는 전형적 장르는 특정 장르로 한정한다.

‘상징적’ 단계는 인간 정신이 아직 절대자를 어떤 구체적 실체로서 의식하지 못한 채, 절대적인 ‘무엇’을 향한 막연한 욕구만 지닐 뿐인 상태를 가리킨다. 오리엔트 자연 종교로 대표되는 이 단계에는 ‘신적인 것의 구체적 상을 찾아 헤멤’만 있을 뿐이다. 감관을 압도하는 거대 구조물이 건립되지만 그것은 그저 신을 위한 공간의 구실만 하지, 정작 신이 놓일 자리에는 신의 특정한 덕목(예컨대 ‘강함’)을 어렵듯이 표현할 수 있는 자연물(예컨대 사자)의 형상이 대신 놓인다. 미약한 내용을 거대한 형식이 압도함으로써 미의 실현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이 단계의 전형적 장르는 신전으로 대표되는 건축이다.

‘고전적’ 단계에서는 내용과 형식의 이러한 불일치가 극복된다. 고대 그리스 인들은 신들을 근본적으로 인간적 특질을 지닌 존재로 분명하게 의식했기 때문에, 이제 절대자는 어떤 생소한 자연물이 아니라 삼차원적 인체가 그대로 형상화되는 방식으로 제시되며, 이 단계를 대표하는 장르는 조각이다. 내용과 형식의 완전한 일치를 이룸으로써 그리스의 조각은 더 이상 재연될 수 없는 미의 극치로 평가된다. 나아가 예술 그 자체가 신성의 직접적 구현이기 때문에 이 단계의 예술은 그 자체가 이미 종교이며, 이에 따라 예술 종교라고 불린다.

그런데 인간의 지성은 이러한 미적 정점에 안주하지 않는다. 즉 지성은 절대자를 인간의 신체를 지닌 것으로 믿는 단계를 넘어 순수한 정신적 실체로 여기는 계시 종교로 나아가는데, 이로써 정신적 내면성이 감각적 외면성을 압도하는 ‘낭만적’ 단계가 도래한다. 그리고 조각의 삼차원성을 탈피한 회화를 시작으로 음악과 시문학이 차례로 대표적 장르가 됨으로써, 예술 또한 감각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에 의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 때문에 내용과 형식의 부조화가 다시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이 단계는 상징적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상징적 단계에서는 제대로 된 정신적 내용이 아직 형성조차 되지 않았지만, 낭만적 단계에서는 감각적 형식으로는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고차적 내용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단계는 새로운 더 높은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 정신과 역사의 최종 지점이기 때문에, 이후에 벌어지는 국면들은 모두 ‘낭만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헤겔이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는 출발-완성-하강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그리고 근본적인 정신사적 차원에서는 출발-상승-완성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행 모델을 따른다는 점이다. 즉 세 단계의 순서적 배열은 전자의 차원에서는 예술미의 정점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후자의 차원에서는 지성의 정점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구성된다. 나아가 일견 불일치를 보일 법한 이 두 모델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그의 이론은 이중적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정점이 예술미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퇴보를 의미하도록 구성된 이 이론은 한편으로는 ‘추(醜)’도 새로운 미적 가치로 인정되기 시작한 당시의 상황은 물론, ‘개념적’이라고까지 일컬어질 만큼 예술의 지성화가 진행된 오늘날의 상황까지 예견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섭력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자의 제시라는 과제를 예술이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대 그리스로 한정하고 철학이라는 최고의 지적 영역에 그 과제를 이관시키는, 곧 ‘예술의 종언’ 명제라 불리는 미학적 결론에 이른다.

7. 윗글에 제시된 헤겔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예술은 내용과 형식의 합일이라는 구체적 방식으로 구현되므로, 작품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개념에 앞선 개별 작품의 파악이다.
- ② 예술의 단계적 변천은 인간 정신의 보편적 발전에 의해 추동되므로, 작품들의 미적 수준의 차이는 그것들의 장르적 상이성과 무관하다.
- ③ 문명의 모든 단계적 이행은 인간 정신의 발전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예술의 역사는 다른 영역의 역사와 연계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 ④ 예술은 인간 정신의 심층적 차원을 표출한 것이므로, 예술미의 성취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 ⑤ 예술 양식 변화의 근원은 인간 내면의 보편적인 정신적 욕구에 있으므로, 모든 시대의 작품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첨언

앤지는 몰라도 22년도 헤겔 지문과 유사하다 못해 주제가 겹친다. 리트는 언제나 수능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있다. 비문학 소재 따가기가 유효해진 시점에서 리트의 소재는 꽤나 중요하다.

8. 윗글에 따라 각 시대의 장르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고 오리엔트의 조각은 상징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②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는 고전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③ 중세의 기독교 회화는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 ④ 근대의 고전주의 음악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다.
- ⑤ 현대의 건축은 낭만적 단계의 전형적인 예술이 아니다.

9.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장 앞 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② 가장 뒷단계의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③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가장 지성적인 예술은 없다.
- ④ 가장 비지성적인 예술이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 ⑤ 가장 추한 예술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다.

10. 윗글에 나타난 헤겔의 예술론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에 주로 의존하는 전형적인 철학적 미학이기 때문에 논증적 수준은 높지만 실질적 사례를 언급한 경우는 많지 않다.
- ② 당대까지의 예술 현상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후 시대의 예술적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력을 결여하고 있다.
- ③ 정신사적 차원에서의 설명과 종교사적 차원에서의 설명을 분리함으로써 양자 간에 발생한 결론상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였다.
- ④ 예술사의 시대 구분과 각 예술 장르에 대한 설명이 서로 무관한 논리와 개념에 의거하기 때문에 이론의 전체적 정합성이 떨어진다.
- ⑤ 당대 유럽 이외의 문화를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지성적 단계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론적으로 근대 서구의 자기 우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첨언

헤겔 지문 8번처럼 비판하는 유형이다.

수능 국어에서 비판은 대부분 $A(x) \rightarrow B(y)$ 의 형태를 띈다.

먼저 지문에서 B가 y라고 주장을 한다.

이때 지문이나 <보기>의 A가 x라고 주장하며 B를 비판한다.

그 다음으로 선지를 볼 때 A가 B를 비판할 경우에는 'B가 y라고 주장한 것은 x하기 때문에 틀렸다.'라는 틀을 가지고 풀어 나가면 된다.

x의 비판 값은 y인데 z의 비판이 y라니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수능의 비판은 일대일 함수라는 것이고

주장이 다르면 비판이 다르고 비판이 다르면 주장이 다르다는 원칙도 알아가야한다.

또한 여기서 주의할 점은 'B가 z이라고 주장했는데 x하기 때문에 틀리다.' 같이 B의 주장을 왜곡하는 선지가 나올수도 있다. 이걸 허수아비 때리기 오류라고 부르는데 주의하자.

(선지는 $A(x) \rightarrow B(y)$ 의 형태에서 A, B의 위치와 x, y의 위치에 각각 A, B와 x, y를 중복을 허용하여 나열해서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며 공부할 필요는 없다.)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A라고 부를만한게 없다...

7	③
8	③
9	③
10	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18 LEET

서양 근대 윤리학에서 칸트의 도덕 철학과 헤겔의 윤리 이론은 각기 도덕성과 인륜성의 개념으로 대표되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칸트의 도덕 철학이 갖는 우선적 목표는 ‘보편도덕’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는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인간 존재에게 ‘이성’이 그 자체로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보편도덕’을 세운다. 그는 인간과 도덕으로부터 ㉠ 경험 세계의 모든 우연적 요소들을 제거한다. 인간이 피와 살을 가진 물리적 세계의 존재이고, 감정이나 취향과 같은 경향성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두 소거한다. 이로써 인간이 이성적 존재라는 단 하나의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이성’ 이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지’의 개념을 도출하고 그것을 ‘이성적 의지’라고 부른다. 이성적 의지는 순수한 의지이며 자유로운 의지이자 자율적 의지이다. 여기서 자유란 스스로 법칙을 제정하고 동시에 자신이 제정한 법칙에 스스로 예속되는 ‘자기입법’과 ‘자기예속’으로서 ‘자율’의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행위를 강제하는 의무는 ㉡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생겨난 행위의 필연성’에서 비롯하며,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성적 주체’로서 개인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고 나아가서 모든 이성적 존재를 대변할 수 있는 ‘자기 완결적’ 존재이고, 그의 주관적 행위 원리인 준칙이 도덕 세계의 필연적 보편 법칙이 됨으로써 ㉢ 도덕적 주체가 된다. 칸트는 도덕 원리이자 의무를 ㉣ ‘정언명법’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정식화한다. “네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이에 따르면 도덕성의 핵심은 ㉤ ‘보편화 가능성’에 있다.

헤겔은 칸트의 도덕성 개념을 비판하며 ‘윤리적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윤리적 삶은 진정한 자유의 실현이며, 이는 끝없이 전진하는 자의의식이 도달하는 지점이다. 도덕적 질서와 달리 윤리적 질서는 실재하는 내용을 지닌다. 그리하여 추상적인 또는 형식적인 이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무엇이 의무인지 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윤리의 수준에서는 사라진다. 가족이나 시민사회, 국가와 같은 윤리적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이성적인 본질이 외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며,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특정 역할을 받아들여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인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각자가 지닌 특수한 의지가 보편적 의지로서의 윤리적 질서와 일치하게 됨을 확인하기만 하면, 윤리적 질서 안에서 의무와 권리는 하나가 되어 의무는 더 이상 강제가 아니게 된다.

헤겔은 윤리적 삶의 영역을 ㉦ 인륜이라 부른다. 인륜이 발전하는 계기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가족이다. 개인은 가족을 통해서 윤리적 삶으로 들어간다. 가족 안에서 개체성에 대한 자의의식을 비로소 얻게 되며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가족의 한 구성원임을 알게 되고, 부부 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존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시민사회이다. 시민사회는 스스로 존재하는 개인들의 필요에 따른 연합과 법률적 체계화 그리고 그들의 특수한 공통 이익을 얻기 위한 외적인 조직체를 통해서 발생한다. 개인은 자기 자신의 실재하는 정신이 시민사회 안에 구체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 일정 수준의 자유에 도달한다. 시민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특수하게 구체화된 존재이지만, 법적 체계에서는 모두 동등한 권리를 지닌 존재이다. 세 번째 단계는 국가이다. 개인의 개체성과 특수한 관심은 자신의 완전한 발전의 성취와 권리의 분명한 인식을 추구한다. 이와 함께 개인은 자기 이익을 넘어서서 보편의 이익과 일치하려 하며, 보편을 인식하고 의욕하려 한다. 개인이 국가 안에서 진정한 개체성을 지니고 보편을 자기 자신의 실재하는 정신으로 인식하며 보편을 자신의 목표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국가란 그에게 자유의 실현이 된다.

13. ㉠~㉤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제거하기 위해 도덕적 주체는 개인적 취향, 전통과 관행, 추론 능력과 무관하게 도덕 법칙을 정초한다.
- ② ㉡에 따른 행위란 이성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하여야 할 바를 행하는 것으로 이런 행위만 진정한 도덕적 행위가 된다.
- ③ ㉢은 외부의 사건이나 다른 행위자가 원인이 되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향성을 행위의 동기로 한다.
- ④ ㉣은 ‘네가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싶다면 그 목적에 맞는 수단으로 행위하면 된다’는 뜻이다.
- ⑤ ㉤을 통해 초월적 존재에 의해 선형적으로 주어진 권위로부터 행위의 도덕성이 확보된다.

14.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성의 형식에만 호소하기에 이성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 ② 도덕 원리를 구성할 때 의무와 권리를 함께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무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인간의 자유를 이성적 존재의 보편성으로 한정하여 윤리적 삶의 구체적인 자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 ④ 인간에게 본성으로 주어진 이성 능력을 발휘하여 보편의지를 함양하는 과정에 논증이 편중되어 균형을 잃고 있다.
- ⑤ 고립적인 자기동일성의 차원에 머무름으로써 윤리적 삶의 각 단계를 거쳐 자의의식에 도달하는 자아 형성의 가능성을 도외시하고 있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족의 단계에서 자녀들은 양육될 권리를 지닌다.
- ② 시민사회의 단계에서 모든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는 동등하다.
- ③ 국가의 단계에서 개체성은 사유와 구체적 현실 모두에서 보편성으로 통일된다.
- ④ 시민사회보다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는 고양된 형태로 구현된다.
- ⑤ 가족, 시민사회, 국가는 이성이 외적으로 발현되는 단계들을 나타낸다.

첨언

칸트와 헤겔이다. 이건 시작부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일관적으로 읽어나가자. 글을 완전히 '이해'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읽는게 아니다. 논지만 파악하고 정보를 정리하고 넘어가자.

1

칸트의 도덕 철학과 헤겔의 윤리 이론이 논란거리라고 한다. 무엇이 논란 일까?

2

칸트의 도덕 철학이 제시된다.

이미 주어진 이성 → 보편 도덕
 모든 우연적 요소 X

그런데 읽다보면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한다. 바로 '이성'. '그리고' 가 제시되었으니 무언가 추가되었다. 정리하고 가자

행위의 필연성 → 행위를 강제하는 의무(=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판단 기준)

3

무언가 알 수 없는 말이 우르르 나온다. 또 한번 정보의 관계를 정리!

이성적 주체 → 자기 완결적 → 도덕적 주체
 정언 명법은 도덕 원리이자 의무
 결론적으로 보편화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뭘 말이지...?

도덕 세계의 필연적 보편 법칙
 “네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

앞을 상기해보면 반복해서 제시해줬다.

4

헤겔은 칸트를 비판한다고 한다. 어떻게?

일단 헤겔의 입장부터 정리해보자.

윤리적 삶 = 자기의식이 도달하는 지점
 실재하는 내용을 지닌다(도덕적 질서는 x) → 추상적인 또는 형식적인 이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무엇이 의무인지 결정할 수 없는 어려움 사라짐
 ‘그리고’
 특수한 의지가 보편적 의지로서의 윤리적 질서와 일치하게 됨을 확인 → 의무는 강제x

5

윤리적 삶 = 인륜 (발전 과정순 정리)
 1. 가족 → 독립적 개인x 깨달을 때, 권리와 의무 받아들임
 2. 시민사회 → 개인은 자기 자신의 실재하는 정신이 시민사회 안에 구체화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 일정 수준의 자유에 도달
 3. 국가 → 보편을 자신의 목표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추구할 때, 국가란 그에게 자유의 실현이 된다.

13	②
14	④
15	②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 LEET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지만, 아이들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해를 입을 수도 있다.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출산은 한 인간 존재에게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 다른 인간을 존재하게 하여 위협에 처하게 만들 때는 충분한 이유를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출산이 윤리적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기르는 즐거움과 아이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이를 기르는 것은 괴로운 일이며 아이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으로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니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아이를 낳는 것과 낳지 않는 것 중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철학자 베나타는 이렇게 경험에 의거하는 방법 대신에 쾌락과 고통이 대칭적이지 않다는 논리적 분석을 이용하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논증을 제시한다.

베나타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생각에 근거한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 좋은 일이 있을 경우는 그렇지 않은 인생보다 풍요로워지긴 하겠지만, 만일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잃을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엇인가를 잃을 누군가가 애초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존재하게 됨으로써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심각한 피해로 고통을 받는다. 이 주장에 반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부유하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혜택은 그들이 겪게 될 해악을 능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 것이다. 그러나 베나타의 반론은 선의 부재와 악의 부재 사이에 비대칭이 있다는 주장에 의존하고 있다. 고통 같은 나쁜 것의 부재는 곧 선이다. 그런 선을 실제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없더라도 어쨌든 그렇다. 반면에 쾌락 같은 좋은 것의 부재는 그 좋은 것을 잃을 누군가가 있을 때에만 나쁘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은 존재함에 비해 진짜 혜택인 반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좋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손실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존재의 쾌락은 아무리 커도 고통을 능가하지 못한다. 베나타의 이런 논증은 아래 <표>가 보여 주듯 시나리오 A 보다 시나리오 B가 낫다고 말한다.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표>

시나리오 A: X가 존재한다	시나리오 B: X가 존재하지 않는다
(1) 고통이 있음 (나쁘다)	(2) 고통이 없음 (좋다)
(3) 쾌락이 있음 (좋다)	(4) 쾌락이 없음 (나쁘지 않다)

베나타의 주장을 반박하려면 선의 부재와 악의 부재 사이에 비대칭이 있다는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 첫 번째 비판을 위해 천만 명이 사는 어떤 나라를 상상해 보자. 그중 오백만 명이 끊임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다른 오백만 명은 행복을 누리고 있다. 이를 본 천사가 신에게 오백만 명의 고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간청한다. 신도 이에 동의하여 시간을 거꾸로 돌려 불행했던 오백만 명이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다시 창조했다. 하지만 베나타의 논리에 따르면 신은 시간을 거꾸로 돌려 천만 명이 사는 나라를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이 천만 명을 아예 존재하지 않게 하는 식으로 천사의 간청을 받아들이면 천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릴 것이다. 이 사고 실험은 베나타의 주장과 달리 선의 부재가 나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생명들을 빼앗는 것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대가로는 지나치게 크다.

첫 번째 비판은 나쁜 일의 부재나 좋은 일의 부재는 그 부재를 경험할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베나타의 전제를 받아들였지만, ㉡ 두 번째 비판은 그 전제를 비판한다. 평가의 용어들은 간접적으로라도 사람을 언급함으로써만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부재가 그 부재를 경험할 주체와는 관계없이 의미를 지닌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베나타의 이론에서는 ‘악의 부재’라는 표현이 주체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 비존재의 맥락에서는 나쁜 것을 피할 개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베나타의 주장이 옳다면 출산은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으며 출산에 관한 도덕적 성찰은 반드시 출산의 포기로 이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준 부모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그 주장의 정당성은 비판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22. 베나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는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② 아이를 기르는 즐거움은 출산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 ③ 태어나지 않는 것보다 태어나는 것이 더 나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 ④ 고통보다 행복이 더 많을 것 같은 사람도 태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 ⑤ 좋은 것들의 부재는 그 부재를 경험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악이 될 수 있다.

23. 베나타가 ㉠에 대해 할 수 있는 재반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적으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전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도 없다.
- ② 쾌락으로 가득 찬 삶인지 고통에 시달리는 삶인지 구분할 객관적인 방법이 없다.
- ③ 삶을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묻는 것은 삶을 새로 시작할 가치가 있는지 묻는 것과 다르다.
- ④ 경험할 개인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부재하게 된 쾌락은 이미 존재하는 인간의 삶에 부재하는 쾌락을 능가한다.
- ⑤ 어떤 사람이 다른 잠재적 인간에게 존재에 따를 위험을 안겨 주는 문제와 어떤 사람이 그런 위험을 스스로 안는가 하는 문제는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24. ㉡이 <표>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2)와 (4) 모두 좋다고 생각한다.
- ② (2)와 (4) 모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 ③ (2)는 좋지만 (4)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 ④ (2)는 좋지만 (4)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 ⑤ (2)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고 생각하지만 (4)는 나쁘다고 생각한다.

25. <보기>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다음 두 세계를 상상해 보자. 세계 1에는 갑과 을 단 두 사람만 존재하는데, 갑은 일생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쾌락은 조금만 경험한다. 반대로 을은 고통을 약간만 겪고 쾌락은 엄청나게 많이 경험한다. 그러나 세계 2에는 갑과 을 모두 존재하지 않는데, 그들의 고통이 없다는 것은 좋은 반면, 그들의 쾌락이 없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 베나타에 따르면 세계 2가 갑에게만 아니라 을에게도 언제나 분명히 더 좋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을에게는 세계 1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한다.

- ① 나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아도 언제나 좋은 것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쾌락은 단순히 고통을 상쇄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훨씬 능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고통의 없음은 좋기는 해도 매우 좋지는 않지만 쾌락의 없음은 매우 좋지 때문이다.
- ④ 인간은 고통이 쾌락에 의해 상쇄되지 않아 고통이 쾌락을 능가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이다.
- ⑤ 고통의 없음은 매우 좋지만 쾌락의 없음은 나쁘기는 해도 매우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3	③
24	②
25	②